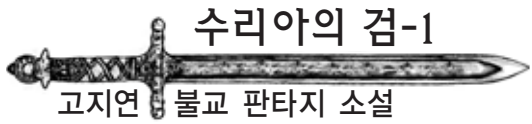


# 칼키는 말을 멈추고 무니의 얼굴을 뺨히 바라봤다



## 암흑속의 두 소년②

한편, 카일라스산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루드라는 '우주수'라고도 불리는 야그니 나무 아래에 앉아 명상에 잠겨 있었다. 넓은 광휘가 감도는 그의 단정한 얼굴은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그런데 그의 목 언저리에서 무엇인가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목도리처럼 그 존재감을 감추고 있던 뱀이 눈을 뜬 것이다. 조금씩 루드라의 가지런한 은색 속눈썹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람도 마음대로 불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분명 어떤 강력한 힘이 그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누군가 그의 명상을 깨우면서까지 할 말이 있는 모양이었다.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다. 속눈썹의 움직임이 멈추고 얼마간의 시간이 다시 고요히 흘렀다. 이윽고 루드라가 두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키가 큰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그 노인네가 사라졌을 때 만큼 심각한 일이라도 생긴건가?"

부드럽지만 엄격한 목소리는 책망을 담고 있었다. 루드라의 미간에 자리한 세 번째 눈이 자신 앞의 상대를 불로 태우듯 응시했다.

"아닙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얼굴을 드니 키가 더욱 커 보였다. 그리고 앙상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살이 없는 얼굴에 비해 몸은 단단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작은 눈동자에서 약간의 머뭇거림이 보였다.

뜨거운 세 번째 눈이 갑자기 루드라의 서늘한 눈빛이 눈앞의 남자를 향했다.

"눈의 산에 인간이 침입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저도 카일라스에 돌아와서야 보고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사죄하였으나 루드라의 눈빛은 다음 말을 재촉할 뿐이었다.

"인간, 그것도 어린 아이라고 합니다. 산 초입에 쓰러져있던 것을 발견했는데, 아무래도 여기까지 혼자 올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앉지도, 그렇다고 인간계로 돌려보내지도 못해 잡아왔다고 합니다. 크리슈나님이 거신 장난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크리슈나는 지금 수면기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그것도 소년을 발견하여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처는 확실히 신속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처벌은 이미 내렸습니다."

남자는 말을 마친 후, 자신 역시 루드라의 처벌을 기다린다는 듯 다시 고개를 숙였다.

"흥미롭군. 그 성에 인간이 들어갔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두 명이나 잡혀 와 있단 말이야. 게다가 어린 인간들이란 말이지."

"죄송합니다."

"아니야. 인간이 거기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말이지. 테드모, 아무리 유능한 너라도 그런 불가능한 사태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 그나마 눈의 산이라... 그곳의 기운들이 아주 미묘하게 흩어졌다는 걸 잠시 느끼기는 했어."

루드라가 두 눈을 감자 다시 미간 사이의 세 번째 눈이 고개 숙인 남자, 테드모를 향했다.

"그런데 단지 그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날 찾아온 것은 아닐 텐데. 무엇인가? 그름은 내가 명상하기 좋아하는 시간이야. 설마 그런 건 아닐 테지."

"그게... 눈의 산에서 발견한 소년에게서 이상한

을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길을 잘못 들어 그대로 얼어붙은 온갖 동물들이 산의 초입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또 입산금지를 알리는 경계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 정상에 바로 얼음의 성이라는 감옥이 자리하고 있다. 마치 안이 흰히 다 들여다보일 것처럼 투명해 보이는 성은 전체가 다 수정으로 만들어져 있기에 말 그대로 얼음의 성처럼 보였다. 빛을 받으면 오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이 성에는 역설적이게도 주로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혼란을 일으키는 정령들과 감히 신계를 넘본 요괴들이 갇혔다. 그러나 인간이 얼음의 성에 갇혔었다는 이야기는 물론이요 이 성의 존재 자체가 인간계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에서

고 사실 잠이 막 들러던 잠이기도 했다. 하지만 네 잠꼬대 소리에 깨고 만 거야. 무엇보다 이 불도 그름 날이 아니면 켤 수 없게 되어있거든. 하여간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어."

칼키는 심긋이 미소를 지었다.

"아니, 사실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놀란 거야?"

그의 질문에 무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 그래도 도톰한 입술을 더 내밀며 인상만 잔뜩 찌푸렸을 뿐이다.

"그런데 소년, 아니, 아니. 무니라고 했지. 근데 난 다가 누구야? 아주 애타게 부르던데 말이야."

무니는 대답은커녕 아예 고개를 돌려 버렸다. 또 다시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결국 칼키는 무니

"난다는 하나뿐인 내 친구야."

"그런데?"

"그런데 어디서 헤어지게 된 건지 모르겠어. 어느 순간부터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 같아. 답답해."

"그렇군.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된 건지는 기억해?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장소는 어디야? 거기서 잡혀 여기까지 끌려 온 거 아닐까?"

"잘 모르겠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무니는 머리를 부여잡더니, 이내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래도 역시 기억이 나질 않아. 그래도 확실히 추격을 당하긴 했었지. 영문도 모르고 쫓기고 있었어."

칼키는 '흠...'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말이야, 접혀왔거든. 그러니까 썩-하고 여기 군대인 마히사들에게 끌려서 말이야. 그래서 딱히 기억을 잃는다고나 하는 일은 없었는데, 건너 방에 있다가 결국 소멸돼 버린 정령 아저씨 말을 들어 보니 눈의 산에 들어서면 갑작스러운 추위 때문에 아무리 정령이라고 해도 정신 줄을 잠시 놔버리게 된다. 인간인 내가 만약 잡혀온 게 아니라 제 발로 얼음의 산에 들어온 거라면... 아,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한 건가?"

칼키는 말을 멈추고 무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확실히 남다른 데가 있어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얼음의 산에서 무사히 살아남아 여기까지 끌려 왔으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어린 소년이었다. 물론 칼키 자신도 어리지만 말이다.

"아찌되었든, 너도 아마 그 추위 때문에 부분적으로 기억을 잃어버리게 아닐까 싶어. 하여간 그럼 넌 여기 왜 온 건지도 전혀 모르다는 거야?"

"응."

"확실히 인간이 맞긴 한 거고?"

"무슨 소릴 하는거야. 인간이 아니면 뭐라는 거야?"

"와! 또 육하는구나. 간수 아줌마 말에 의하면 자기가 기억하는 한 여기 잡혀온 인간이라고는 나쁜 이었다기에 하는 말이야. 그 아줌마, 기억력이 썩 좋은 거 같지는 않았지만. 그럼 널 추격했던 자들이 어떤 모습였는지는 기억이 나?"

무니는 기억을 떠올렸다.

"응. 하지만 그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본 것은 없어. 아! 모두들 흰색 옷을 입고 있었어. 뭔가 다른 색의 끈을 허리에 매고 말이야."

"그래? 이상한데? 날 여기까지 데려온 마히사들은 모두들 붉은 옷에 황금색 띠를 두르고 있었거든. 역시 하늘을 날기는 했지만 말이야. 도대체 인간계의 하늘에 왜 그렇게 이상한 존재들이 날아다니는 걸까?"

칼키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장을 쳐다봤다. 무니가 그런 그를 쳐다보다 물었다.

"그럼 그러는 년 왜 여기에 끌려온 건데?"

"흠. 내가 여기 왜 끌려 왔어. 왓-나-면 말이지. 왕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야."

무니는 깜짝 놀라 칼키를 쳐다봤다. 그는 또 다시 심긋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삽화 · 김홍인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루드라의 세 번째 눈에 빛이 번쩍하다가 사라졌다. 순식간에 눈부실 정도로 환해졌던 주위도 다시 온화한 빛을 되찾았다.

"이상한 것?"

루드라가 갇혔던 두 눈을 다시 뜨자 뺨 역시 고개를 쳐들어 테드모를 바라보았다.

눈의 산은 인간계와 신계 사이에 자리한 아홉 개 산 중의 하나로 그 냉기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

마찬가지였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상인이자 모험가였던 쿠상이 남긴 기록에도 눈의 산이라는 장소만이 언급되었을 뿐이었다. 바로 그런 감옥에 이제 전설로 전해질 지도 모를 두 소년이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각선 방향으로 멀찍이 떨어져 앉은 소년들 사이에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이번에도 칼키가 먼저 그 침묵을 깨고 무니에게 말을 건넸다.

"미안해. 잠을 좀 자고 싶어서 불을 끄었어. 그리

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칼키는 이 소년의 나이가 생각보다 더 어린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가는 갑자기 불을 켜는 바람에 제대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하얀 피부에 큰 눈과 붉은 입술이 마치 어린 여자아이 같이 부드러워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 고개를 돌려 칼키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소년의 두 눈에서는 어린아이같은 눈감이나 부드러움이 보이지 않았다. 까맣고 깊은 눈동자는 그 어린 소년이 걸어온 길을 보여주듯 많은 걸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 출강 및 통신

### 2011학년도 제 20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0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1학년도 제20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범위증이 주어집니다.
-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⑤ 법사포수 후 사찰·포교원 등공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b>모집과정</b>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b>모집학반</b>	· 출강반 · 통신반
<b>입학자격</b>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b>교육기간</b>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법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장구수행)
<b>교육장소</b>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1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주)더나인 칼라 단청 사업단

# 옷칠단청

천년보장 옷칠이 꼭 필요한 곳 : 사찰단청, 기존 단청 보호, 사당, 문중재실, 일반한옥, 목조주택.

천년고찰을 꿈꾸는 스님에게만 옷칠 단청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단청은 밀포, 아교, 포리졸을 사용한 화학 재료기법으로 공해는 물론 방충, 방습, 방염의 천적으로부터 보존·보호 능력이 전혀 없어 3년 단위로 방충제, 방염제를 살포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옷칠단청기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완전 해결해 줌으로 천년을 보장하는 친환경 천연 철로서 목재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불화의 맥을 이은 금호, 보은, 일섭, 우일스님 문종의 수석말제자

**불광미술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78-4

단청, 명화, 개금  
3절장인

**만성조기환** 010-6426-2563  
(042)254-2567

☎ 02)733-1959  
720-1836